킬리만자로에 퍼진 한국어…농업기술에 'K-컬처' 더하다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③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외곽의 무와송가 마을.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인 청년들이 밭과 온실, 축사를 오가며 현장 실습을 하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이하 보리가람)에 또 하나의 배움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이다.

보리가람에 들어선 한국어 교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이하 세종학당)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의 학당 모집에 보리가람이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보리가람이 갖춘 교육시설을 활용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자는 취지였다.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정식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세종학당 운영을 맡은 보리가람 측은 당시 한류가 미주와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탄자니아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한국어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절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세종학당에서는 현재까지 531명이 한국어를 공부해 수료증을 취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약 60명이 수료했고 하반기에도 약 100명이 수강을 준비하고 있다.

보리가람이 위탁운영을 하는 만큼, 수강생의 80%는 보리가람 학생이고 나머지 20%는 인근 중등교육기관 학생과 일반인 등이다. 농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전공교육과 함께 한국어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수업은 입문·기초부터 초급, 중급 준비반까지 단계별로 운영된다.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를 활용하고 말하기 시연과 팀워크 활동, 교재 수업 등을 병행해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국문화 체험이 학습 동기로

세종학당은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연계해 운영한다. 한국영화제와 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부채춤, 태권도, 송편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다양하다.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다는 '코리안드림'에서부터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는 기대까지 폭이 넓다.

특히 문화체험은 관심을 구체적인 학습 동기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올 6월 한국 전통춤인 부채춤을 배운 학습자들이 직접 작품을 구성해 가족과 학부모를 초청한 참관수업을 열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화체험은 학습자를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게 세종학당 측의 설명이다.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특히 입상자가 한국에 초청돼 직접 한국문화와 사회를 경험한 뒤 돌아오는 사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극이 된다. 책과 영상으로 접하던 한국을 실제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국 유학으로 넓어진 진로

세종학당에서 시작한 한국어 학습은 일부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리가람 농업 교육에 한글 교육 결합
2022년 정식 위탁받아 총 531명 수료

음식 만들기부터 부채춤 · 태권도까지
한국문화 체험…한국 대한 관심 높여

유학 · 취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회
"한국 진출 돕는 취업 · 유학반도 구상"

아름다운동행 장학생으로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에릭과 아마니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보리가람에서 농업기술을 익히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고, 졸업 후 한국으로 건너와 학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 한국농수산대 글로벌 프로그램에 지원해 한국어 면접을 거쳐 선발된 힝기는 전액 지원으로 2025년 한국에 와 교육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다. 보리가람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한국의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고, 이후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탄자니아로 가져가기 위한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보리가람과 세종학당의 결합이 갖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농업기술 교육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체험까지 제공한다. 농업을 전공하던 학생이 한국어를 익혀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에 도전하면서 진로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한국불교 만나는 또 하나의 통로

한국어 교육은 한국불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접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 불교계의 지원으로 설립된 보리가람의 특성상 학생들은 스님이 운영하는 선명상 수업에 참여하며 배운 언어를 실제로 활용하곤 한다. 또 스님과 차담을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한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서는 연등 만들기와 관욕식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의 문화와 의례를 접한다. 불교를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농업기술에서 시작된 배움이 언어와 문화로 확장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불교와 만나는 셈이다.

다음 과제는 '취업'

세종학당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한국어 교육을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와 연결하는 일이다. 보리가람을 졸업한 학생들이 현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직 제한적인 만큼, 언어 능력을 실제 경제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세종학당을 수료한 우수학습자 가운데 한국회사에 취업한 사례가 있으며 해당 직원들이 직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기업이 다시 세종학당에 인력 채용을 문의하는 경우도 생겼다.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고 취업 성과가 다시 새로운 교육 수요를 만들어낸 사례다.

반면 보리가람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세종학당에서 더 이상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지속적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후속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세종학당 측은 향후 정부와 연계해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유학과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세종학당의 지난 4년은 농업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에게 한국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는 과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배움을 유학과 취업 등 실제 진로로 연결하는 일이다.

농업기술에 한국어를 더하고, 한국어에 문화를 더하면서 탄자니아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 킬리만자로 아래에서 시작된 한국어 수업이 앞으로 어떤 인재와 교류의 길을 만들어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 수강생의 20%는 인근 중등교육기관 학생들이다. 수업은 입문 · 기초부터 초급, 중급 준비반까지 단계별로 운영된다.



▲ 설날을 맞아 한복을 입고 보리가람 법인처장 선정 스님에게 세배하는 모습.



▲ 세종학당 학생들이 설날을 맞아 함께 떡국 공양을 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 한국어 말하기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은 학습 동기를 높이는 요소다.



◀ 세종학당은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연계해 운영한다. 사진은 태권도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



▲ 올해 상반기 60명이 수료했다. 하반기에는 100명이 수강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뷰

"한국어 홍보대사가 꿈"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마리지아니 씨



2022년부터 한국어 공부 시작해
한국어 대회 1위…한국 연수도
"노력하면 된다는 자신감 얻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한 청년이 한국문화 경연대회 우승을 계기로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마리지아니 씨에게 한국행은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출발점이었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2022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온 마리지아니 씨는 한국문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24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참가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국립중앙박물관, 장안문, 롯데월드 어드벤처, 한강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경험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달라진 것은 언어 실력만이 아니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졌다.

한국문화 경연대회 준비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마리지아니 씨는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한국어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고, 무엇이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특별한 미래 목표가 없었다. 외국어 공부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처럼 새로운 언어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기회와 시야를 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국어의 가능성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앞으로 외국어, 특히 한국어를 배우도록 동기를 주는 홍보대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보리수 아동센터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10월 중순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출근할 예정이다. 한국어 공부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제 진로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마리지아니 씨는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임은호 기자

인·터·뷰

"한국어는 더 많은 기회 만나는 문"

2026년 한국어 말하기 · 쓰기대회
우승자 **에녹** 씨



2023년부터 공부…"포기 없어"
한국어 능숙히 말하는 게 목표
10월 중순 한국 연수 참가 기대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에서 2023년부터 한국어를 공부해 온 에녹 씨는 최근 학당에서 열린 한국어 말하기·쓰기대회에서 우승하며 한국 초청 연수의 기회를 얻었다.

에녹 씨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더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특히 음식과 스포츠, 놀이 등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한국의 다양한 식문화를 접하면서 건강한 생활 실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놀이와 스포츠 역시 관심 분야다.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공동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어 말하기·쓰기대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연설문을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세종학당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며 협력한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에녹 씨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언어를 배울 때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말을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면 조금씩 내 것이 된다"고 말했다.

에녹 씨에게 한국어는 외국어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수단이다.

에녹 씨는 "한국어 공부는 다양한 사업·교육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문"이라면서 "새로운 언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새로운 분야를 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학당 학습자들에게도 "한국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히 도전할 것을 당부했다.

대회 우승으로 에녹 씨는 10월 중순 한국에서 진행되는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연수'에 참가한다. 교실에서 익힌 한국어와 문화를 현지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는 "한국 음식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장소,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